

David Emanuel 박사, 세션 2, 출애굽기 시편 78편

© 2024 데이비드 에마누엘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출애굽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Emanuel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시편 78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출애굽기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시편 136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제가 제목을 붙인 시편 78편을 보면서 시편의 순서를 따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78편입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119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두 번째로 긴 시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퀴즈에서 그것을 묻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긴 출애굽 모티브를 다룬 시편 78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136편이 어떤 종류의 의식이나 축제에서 함께 낭송되도록 되어 있는 틀, 즉 전례의 틀 안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의 틀에 확립된 시편을 발견합니다.

서론을 살펴보면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문학 작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단어와 지혜 어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연대순을 희생했습니다. 연대기적 순서는 성경 문학, 즉 문학 전반의 배열을 지도하는 힘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인들이 확실히 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요점을 가르치고, 메시지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했던 측면입니다.

그것이 연대순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메시지를 얻는 한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문학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x가 y 뒤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연대순으로 특정 방식으로 발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시편은 복잡한 편집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에는 여러 층의 발전된 부분이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아마도 원래 쓰여진 첫 번째 버전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시편에서 편집 계층을 식별하는 방법은 이 특정 강의 시리즈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식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편에는 분명히 두 가지 다른 메시지를 가리키는 두 가지 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 구성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조상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는 매우 강력한 움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눈에 띄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유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후에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시편 자체 내에서 이 두 가지 요점이 어떻게 강조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유다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성전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한 남왕국 이스라엘의 선택이다.

그것은 또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에 대한 배척과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 흐름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구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요성 1부터 8까지, 주님의 행사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행사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 그것은 시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 특히 그분의 기적을 기억하는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는 에브라임의 불신실함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개념이 한 지파에서 북쪽 왕국, 즉 북쪽 지파로 약간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매우 크고 영향력이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 지파에는 많은 구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종종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에브라임으로 알려지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을 거스르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 일련의 낭독을 합니다. 그것은 역사와 이것이 파헤쳐지는 출애굽기의 일련의 다른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심으로써 친절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반역, 반역으로 대응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그들을 그다지 벌하지 않으시지만, 벌을 내리시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친절했고 그들은 그에게 반항했습니다. 그것은 연주회이고 그 아이디어나 패턴은 그 특정한 연주회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략 34장부터 41장까지의 시편 요약이 있는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기본적으로 요점을 강조합니다.

단지 사례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요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시적인 단어로 지정하는 것도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비유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말씀하실 것이니 너희는 이러지 말라. 그러니 그러지 마세요. 따라서 예를 들되, 명확하게 말하고 요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에 비추어 신실함을 두 번째로 낭송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앙으로 내려갑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재앙과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독주회는 여기서 첫 번째 독주회와 유사합니다. 여기 이 낭송에서 재앙이 언급되기 때문에 당신은 또한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발생한 재앙과 광야 전통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예를 연대순으로 보면 이 예보다 앞선다고 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뒤집은 것인데, 이것이 그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가 가고 싶은 방향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거부하고, 다윗은 유다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목자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책임을 대신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이 시편의 구조에서 몇 가지를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여기 중앙 위치이며 두 개의 연주회에 의해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에브라임에 대한 언급으로 다시 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나는 이것을 그릴 수 있다. 이를 치아스틱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특별한 경우를 볼 것입니다. A, B에서 볼 수 있습니다. x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에 A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 위치가 있고 여기에 해당 위치가 있습니다. 이 x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조 위치, 즉 강조 위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곳은 메시지의 핵심이나 중요한 부분이 저장되는 곳이며 시편의 특정 부분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반역과 끊임없는 죄의 사건들에 대한 시편 기자의 요약이며,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내에서 두 번째 또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강조 위치는 끝에 나옵니다.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들도 종종 성경 산문에서도 이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아주 중요한 점을 말하고 싶을 때 끝까지 그 점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작품을 다 읽었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 남는 맛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강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묘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좋은. 그럼 개별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긴 시편입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시편 자체의 흥미로운 점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지시를 들어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구 중 하나인데, 아이디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혜의 개념과 연결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내 지시를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거기에 올려 놓지 않았습니다. 이 특정한 장소에서 지시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라(Torah)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절에서 발견하는데, 제가 실제로 거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교훈을 위한 단어이다. 이제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토라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말은 그것이 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것을 번역해야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종종 지혜 문헌에서 우리는 토라(Torah)라는 단어가 지시로 번역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토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의미일 것입니다. 안내하는 것입니다.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 갈 수 있는 길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특별한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한 지혜 문학에 대한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예도 발견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지혜 문헌을 어떻게 식별합니까? 어휘로. 이런 문구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 시편의 제목은 마스크일이라고 불립니다.

Maskil은 뿌리, *sekal*, *sin*, *kaf*, *lamed*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총명, 총명을 뜻하는 어근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그냥 바꾸겠습니다. 세칼입니다. 내 말은, *sekal*, 그것은 죄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혜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잠언 4장 5장과 5장 7절에 나오는 내 입의 말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2절에서 잠언, 마샬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Mashal*은 독자에게 가르치는 격언인 짧은 말입니다.

수수께끼인 *chida*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의 세계로 들어가면, 단어의 의미를 적용하는 데 항상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잠언이라는 단어를 한 부분, 절반, 쿨론, 순서대로 사용하면 간단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맞추려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chida*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순수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이 두 단어가 서로 관련된 단어이고 그가 다른 단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평행법에서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좌는 히브리 시에 관한 강좌가 아니므로 너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반복이 발생하며 이것이 제가 이 특정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가르치는 개념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거기에는 그들을 가르치고 말하라 하였느니라. 그것이 시편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 이 구절들에서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라는 개념을 네 번이나 갖고 있습니다. 3개부터 7개까지의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짧은 이 작은 부분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편을 읽을 때 이 점을 아주 아주 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념이 반복되는 것을 본다면, 이는 시편 기자가 우리가 이 특정한 것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것이 그의 창조 전체에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복을 가지고 있으며 4절에 niflao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주님과 능력과 그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niflaot는 시편 136편에서 본 펠레(pele)라는 단어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뜻입니다. 기적의 용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niflaot 분사인 이 특정 형식의 단어를 찾을 때 그것은 특히 출애굽, 출애굽에서 일어난 기적, 그것이 재앙이었는지, 세상이 분열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식량 공급이었는지.

이 모든 것은 니플라웃(niflaot), 즉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큰 일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의 불신실함을 다루는 매우 특이한 부분, 매우 특이한 내용의 다음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한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어떤 단계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날에 돌아갑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 후퇴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거나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음,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가 이 내용을 자신의 시편에 맞게 꾸며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동시대인들의 관심을 끌거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그는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고대 전통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었으며 분명히 역사적 기간, 즉 2,000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기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역사적 전통이 담겨 있고 그 주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흔히 생각하거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많은 전통이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우리가 기록한 사건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종 시편 기자, 시인, 그리고 다른 성경 작가들도 이러한 전통 중 일부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다른 전통들이 성경에 구체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다른 전통 중 일부를 끌어내고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을 생각해 보면 도마복음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유다복음에는 사람들이 알았을 또 다른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전혀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없는 에브라임과 관련된 전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다른 전통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을 알아내거나 파헤치기 위해 가기 좋은 곳은 타르굼(Targums)입니다.

초기 랍비 저작물인 타르굼과 두 번째 성전 시대의 초기 유대 문학은 그 메아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탈굼 시편에서 우리는 이것이 여기서 언급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동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 에브라임 자손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을 계산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30년이나 일찍 나갔습니다. 그 때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활을 든 용사들을 가지고 돌아서다가 전쟁의 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아리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매우 큰 질문이 있습니다. Targum Psalms의 저자는 여기 시편 78편에 기록된 동일한 전통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Midrash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는 이것이 성경에 없는 것을 보고 이 이야기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것은 큰 질문입니다.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시편에 반영된 또 다른 전통의 가능성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후반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전통의 흔적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다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나는 성경 문헌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시편에 스며드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전통의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다가 갈라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낭송을 보세요. 그리고 그가 바다를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물을 무더기처럼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애굽기 15장 8절을 반영하는 표현이다. 우리는 바다의 노래인 출애굽기 15장이 출애굽기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산문 전통보다는 출애굽기의 시적 전통을 사용하거나 채택한 것 같습니다. 이 시편 전반에 걸쳐 여러분은 또한 기적, 즉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장엄한 일들, 즉 정말 정말 인상적인 일들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올바르게 응답하도록 정말로 격려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특별한 시편에서 바로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는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시편 136편에서 바로가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신은 전사, 왕 같은 인물로 묘사되지만 여기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장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라오에 대해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의 군대가 바다로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적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빵의 공급으로 넘어가서 천국의 문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인 이 개념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 즉 불순종에 대한 자비로운 응답의 예입니다. 내 말은, 이에 앞서 17-20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의 기적에 대해 최악된 반응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며 그들에게 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만나 전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하나가 있고 출애굽기 16장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빵을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적인 경우의 표현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장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더 기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과장됐네요. 그분은 그들에게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하시고 먹을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을 때 그것은 마치 그들이 걷고 있고 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가 묘사한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면 훨씬 더 기본적입니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땅에 이런 종류의 물건이 있어서 그들이 집어 들고 다양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발생하는 방식은 실제로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장엄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를 내렸습니다. 그는 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몇 마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문헌에는 천국에서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이것을 그리면 여기에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이것이 세상이고 여기에 이 땅이 있다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 뭔가 확고한 것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단단하고 구체적인 것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로는 라키아(rakia)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궁창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가끔 열리는 견고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문은 잠시 열리며 그곳에서 비가 내리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고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올라가면 여기로 돌아가면 다양한 창고가 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저장하는 공간도 있었고, 비를 저장하는 공간도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양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이 열려 물건을 제공한다는 생각, 즉 천국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개념이 열왕기하 7장 2절에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것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기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창문이 열려서 이 모든 물품을 쏟아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이제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창문이 열리고 음식이 막

내려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분명히 알았을 개념들이 이 특별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음식에 관한 또 다른 것은 만나인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특이한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앞서 민수기에서 만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천연 씨앗입니다. 잔류물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듯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주워서 굵고, 부수고, 굵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에서 인식되는 방식입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이보다 더한 일이 됩니다. 그것은 거의 신성한 음식이 되며 음식, 신성한 음식, 천사의 빵으로 묘사됩니다.

하늘에서 양식 곧 천사들의 떡을 그들에게 보내셨느니라 그리고 여기에는 먹는 음식이 천사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이라는 개념이 있거나 적어도 전통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들이 음식을 먹는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공급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천국의 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천사의 음식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생각은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타르굼 시편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힌트도 줍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천사들의 거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Saity에게 식량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개념을 볼 수 있지만, 엘리야의 경우에도 같은 개념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다가 광야로 달려가다가 금자루 아래 몸을 던지며 이르되 나 죽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 죽게 하소서.

그리고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빵과 함께 이것을 줍니다. 그는 이 빵을 들고 이 빵을 먹습니다. 그것은 시내산까지 그를 지탱해 줍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음식이 인간에게 온다는 생각은 시편 기자 시대에 존재했던 하나의 생각, 개념,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기 이 특별한 시점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공되는 고기는 숫자로 보면 전통에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둘 다 여기서 바람과 동풍을 언급했는데, 이는 바람이 오는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특정한 시간에도 바람이 메추라기를 불러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두 사람 사이에 비슷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암시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모두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있지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중 어떤 종류의 언급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의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그의 주된 적, 즉 주된 갈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심지어는 이스라엘 지파와 하나님 자신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대적이 다른 어떤 민족이나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백성, 즉 이스라엘 나라로 더 적절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편 기자의 요약은 바로 이런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강조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셨다'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언급하거나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회개를 가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분의 기적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아들에 대한 강조점으로 돌아가면, 그분의 기적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분의 형벌과 심판으로 들어가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은 미래 세대에 대한 경고로서 중심 위치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두 번째 독주회로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주로 전염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의 목록과 시편에 나오는 명령의 목록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재앙은 같지만 순서가 다르고 시편의 편수도 다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재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재앙의 전통은 모두 신이 물을 치면서 시작됩니다.

그가 물을 치니 물이 피로 가득 찼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떼의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개구리보다 먼저 오는 떼를 여러분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피가 있고 여기에 떼가 있고 아래에 떼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떼로 말함으로써 그 자격을 갖추어야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여기서 언급되는 재앙은 사실 보통 파리라고 불리는 재앙, 즉 파리 재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떼를 의미하는 아로프(arov)입니다. 정의되지 않았습니니다. 반드시 파리를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에서 파리를 발견하는 이유는 70인역에서 개파리라고 읽는 해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을 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떼 짓기라는 개념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편에 나오는 떼가 삼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는 힘이 있는데, 이는 그가 실제로 말하는 것이 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가 말하는 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Targums에서 이것에 대한 다른 전통으로 갈 때, 그것이 아로프의 전염병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과 네 집 가운데에 수많은 들짐승을 일으키게 하리라. 그리고 이집트인 미츠리의 집들이 들짐승 떼로 가득 차서 그 땅에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Targums의 유대인 전통에서 떼는 파리가 아니라 떼는 야생 동물, 즉 땅을 차지하는 야생 동물 떼입니다. 야생 사자, 늑대 및 기타 모든 것이 있으면 삼키기와 같은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종류는 삼키기 아이디어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언급할 가치가 있는 이 전통은 현대 유대 문학에서도 볼 수 있는 아로프에 대한 전통 또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유월절 기간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파리의 재앙은 야생동물의 무리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해석이 기독교 전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다음 재앙은 개구리의 재앙인데, 출애굽기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었지만 여기서는 개구리를 멸망시킨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종류의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종류의 개구리였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여기에 계시에 대한 약간의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출애굽 모티브가 곳곳에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사람을 잡아먹고 큰 고통을 주는 큰 이빨을 가진 이상한 메뚜기를 가진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염병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설명에서 이러한 유형의 과장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개구리의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8편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순서의 차이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보낸다.

이것은 출애굽기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인간의 역할은 자주 낮아지고 하나님의 역할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많은 재앙과 기적을 직접적으로 행한 사람이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봅니다.

이 특별한 시편에는 어느 정도 반복이 있습니다. 메뚜기와 어린 메뚜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만들 수는 없다고 언급했지만, 성경적 평행법에서는 서로 균형을 이루는 단어 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한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구절에 우박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은 식물과 동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잠시 후에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특정한 시점에서 우리는 47절에 우박 재앙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박으로 포도나무와 뽕나무를 서리로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강조 패턴 중 또 다른 패턴입니다. 저는 단지 도식화하기 위해 다시 칠판에 갑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히브리어 평행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B, A, 평행 A, 그리고 이와 같은 평행 B가 있는데, 여기서 이 두 단어는 일치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의미 평면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B 부분에 메뚜기와 어린 메뚜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A와 B가 있는 강조형으로 이동한 다음, 뒤바뀌고 그에 해당하는 B와 A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차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어떻게 다르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강조된 구조입니다. 여기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쓰고 있는 또 다른 논문에서 이것이 시편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제 구조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좋은. 계속해서 삽입물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재앙에 대해 한 구절을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두 배로 늘리고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재앙까지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멸망시키는 천사들의 무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노의 길을 평준화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여기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역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한 추가적인 강화, 강조를 위한 극적인 강화가 있습니다. 지연된 동일시라고 불리는 또 다른 시적 형식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편 기자는 어떤 것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단어나 문장의 맨 끝, 절 또는 실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쌓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침내 그것을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식별 지연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또 다른 예를 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가 화를 내고 천사들을 멸망시키는 전체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염병 자체가 마지막에야 찾아온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역병의 재앙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소의 재앙과 짐승의 재앙에 가깝지만 이것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병을 보고 있어요. 어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기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자의 재앙이 이 두 표현 모두에서 궁극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원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의 일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일반적인 논평.

하나는 출애굽기의 일곱 재앙 전통과 출애굽기의 열 재앙 전통을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일곱 개, 죄송하지만 출애굽기에는 열 개입니다.
7과 10이라는 두 숫자는 완전성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사용 예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숫자를 사용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표현의 한 예가 여기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카르나스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왜 울며 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슬프나요? 내가 너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따라서 그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룯에게서도
비슷하거나 똑같은 표현을 발견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일곱 아들보다
낫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10으로 표현되고 다른 경우에는 7로
표현되는 완전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한 전통에서는 7이고 다른 전통에서는 10이라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둘 다 같은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심각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일부 학자들은 이에 대해 주장해 왔습니다. 보기에 매우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물속의 피에서 명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떼에게 더 많은 불편함을 줄 뿐이지만, 그러면 그들은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논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역병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와
그들을 향해 보내실 천사들의 무리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장자들의 재앙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확실히 가장 극심한 재앙이 당한 재앙입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105편을 보면 그 가능성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이러한 시편 번역에는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재앙을 표현하는 시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웅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대부분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하고 불평할 뿐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시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패턴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의 나머지 부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그들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와 애굽에서, 그리고 사막을 통과하여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광야의 사건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변화의 순서를 찾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광야 활동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 빵과 다른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과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처벌합니다. 그들은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산당과 우상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입니다.

산당은 제단을 쌓고 백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도 숭배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고 시편에서는 실로에서의 멸망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사무엘상 4장에 대한 암시일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빼앗아갔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한 참조 일 것입니다. 그는 포로 생활에 힘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온스(oz)인데, 다른 문맥에서는 언약궤를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얻은 암시일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서는 그의 사제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암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제사장의 두 아들 곧 엘리의 아들로써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칼에 쓰러지는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했다는 또 다른 언급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 다음으로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서 애도할 수 없었던 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애도도 못 하고, 궤를 빼앗기고, 남편도 죽고, 엘리도 죽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죽었고, 슬피 울 수 없었고, 그의 과부들도 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바로 여기 있는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대담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술에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단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장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인데 나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 이전, 초기 군주제 시대에는 잠자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잠을 자신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의 팔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힘을 얻으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 옛날처럼 깨어나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44편에서도 분명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자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며 기도와 중보기도와 외침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행동을 취하셔야 한다는 우리의 인식 또는 창조된 인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잠자는 신이 깨어나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오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보 전달의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을 언급했다고 말한 절정의 결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부분, 즉 두 번째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절당했습니다. 북왕국과 북방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거룩한 성막의 거처로 택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브라임은 거절당했습니다.

대신에 유다는 성전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이 지파는 성전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건축된 대략 유다의 위치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시편 전반에 걸쳐 개인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엔 모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엔 아론이 없어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파라오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다윗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가 이 특별한 개인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단지 그분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앞의 슬라이드 몇 장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목자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인도하시는 고삐를 잡고 그들을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를 야곱의 목자에게로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목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하나님께 속했던 인도와 인도의 언어이지만 이제는 다윗에게로 내려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요점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기 전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78편이 길어요. 나는 내가 정의롭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하려면 몇 주가 더 걸리겠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적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의 선하심에 비추어 이스라엘의 반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분은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그 이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반항합니다.

그들은 그의 위대한 힘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조점은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배우게 될 지혜 전통과 연결되었습니다.

일부 누락, 즉 토라의 제공은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론에게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지만 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좋은 사례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편에는 토라(Torah)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토라를 주신 사건입니다.

주는 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반역, 즉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그분의 원수가 된 것은 주로 에브라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내가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것은 잃어버린 전통, 천사의 빵,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투에서 물러났을 때의 퇴각에 대한 암시입니다. 성경 문헌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 생각에는 우리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특별한 시편의 초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 특별한 시편의 초기 성격, 초기 느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승격을 갖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결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직접 하십니다. 그분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는 전염병을 보냈고 하나님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David라는 이름만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출애굽 전통에서

생각해 보면 시편이 출애굽에 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모세에 대해 언급된 바가 없고 아론에 대해 언급된 바가 없지만 다윗이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금 이 시편의 중심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전통을 다룬 시편 중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Emanuel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시편 78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